

장성한 자가 되라

■ 히브리서 5장 10~14절

■ 35(통50), 338(통364)

■ 2017년 7월 9일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죄에 대해 완전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영이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0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어야 합니다(히5:1).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표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자이어야 합니다(히5:4).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도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고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히5:3). 대제사장은 속죄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 받아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끈을 묶고 종을 차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먼저 회개하고 흠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한 것은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입니다(히7:1).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히7:2~3). 멜기세덱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아론의 자손을 통해 대제사장을 세우셨지만 그 이전부터 특별히 세우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혈통이나 율법 아래 매인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사장의 조건과 같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해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피를 전가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셔서 흠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어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지내고 30여년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히5:7~9). 이와 같이 인격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연약함을 체휼하심과 동시에 예수 믿은 우리도 우리의 영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쓰면 우리 영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11~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가르쳐줄 것이 많지만 설명했다가 혹시라도 오해하고 멜기세덱을 신처럼 높일까 염려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12절).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신앙경력을 보면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초보적인 진리 수준의 상태여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학위가 있거나 직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얼마나 자라고,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13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젓이나 먹어야 될 수준에 있습니다. 젓을 먹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얄게 해석하는 초보적인 진리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맞게 적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 날마다 자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겨내면 우리 영이 자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14절a). 단단한 음식은 성경의 신령하고 깊은 진리, 영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아무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들어도 아무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알고 깨달아도 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깊은 진리와 신령한 진리는 깨닫기 힘듭니다. 그리고 들어도 알 수 없고, 발견하기 힘들고, 혹시 안다고 해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령하고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4절b). 지각은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장성한 성도는 지각이 생겨서 영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말도 하고, 감각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분별합니다. 이처럼 지각을 사용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별치 못하게 미혹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성도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채워해주셨습니다. 고난을 다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나 직분보다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령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셔서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하시고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대제사장의 조건 3가지를 설명해 보세요(10절).
2.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11~13절).
3. 장성한 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14절).